

韓醫 內傷疾患에 대한 診斷治療 모델의 類型化작업¹⁾

金 廣 中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ABSTRACT

A Typification of Diagnosis and Treatment Model for Internal Disease in Oriental medicine

Kim Kwang Joong

A Typification of diagnosis and treatment(DT) model must be done in order to generalize the objective stage to the result of treatment to internal disease in connection with the type of viscera and bowel symptom.

We could find 108 DT models in internal disease from the combination of 18 types of viscera and bowel and 6 types of DT treatment processes. Thus, the typification of 108 models of DT can be viewed as a modeling processes of utilizing DT knowledge at each stage. We argue that objectivity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ternal disease can be obtained practically from typification of DT model.

가. 研究目的 및 必要性

1. 研究目的

한방진료기관에서 실제 환자치료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內傷疾患의 유효한 結果를 診斷治療모델의 類型化로 현대인의 보편적인 인식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는 한의학을 客觀化하는 데 구체적 방법의 일환으로 운용될 수 있다.

1) 제2회 현곡상, <일반부> 현곡상(1992. 7. 9)

2. 研究의 必要性

근래에 들어 한의학계에서는 한의학이 현대사회에 동참하여 보다 넓게 활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에서는 기초교육에서부터 실제 임상교육에 이르기까지 윤⁴⁾⁵⁾¹³⁾¹⁴⁾의 연구를 기틀로 삼아 한의학의 客觀化 研究가 다방면으로 시도되어 여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研究結果의 평가에서 항상 문제시되는 바는 한의학의 資料의 대상인 病證의 형성에 대한 客觀的 관찰의 방법이였다.¹⁵⁾ 그것은 病證의 형성이 한의학體系에 따라 전체적 흐름을 통한 각각의 연계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로 觀察의 시공간적인 全一 變화를 나타내지 못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는 分類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학의 客觀的 研究는 한의학의 診斷治療過程을 통하여 病證의 客觀化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보며 한의학의 客觀化 作業의 구체적 실시는 病證의 客觀的 形성이 이루어져 이것이 임상결과를 통해 客觀的인 통계資料의 蒐集이 가능할 때인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病證 認識은 단순히 證型 類型에만 치중하여 이를 기준을 삼고 연구하고 있어 既存의 病證모델에 대한 證型은 가설생성의 범위를 가능한한 포괄적으로 設定하고 있다.³⁾²⁰⁾²¹⁾²²⁾²³⁾²⁴⁾ 이에 病證의 診斷治療過程도 診斷의 모든 過程을 포괄하는 診斷治療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⁶⁾¹⁷⁾¹⁸⁾¹⁹⁾²⁷⁾ 따라서 기존의 證型모델의 診斷治療過程운동은 포괄적인 가설생성의 知識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일관되는 進行이 이루어져 知識의 보편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知識의 중복성과 혼란성을 나타나 실제 임상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임상적 적용에 어울릴 수 있

는 診斷治療모델을 客觀化하기 위하여서는 證型類型과 診斷治療過程類型을 결합시켜 포괄적인 假說生成知識을 辨證論治의 知識에 따라 재정비하는 作業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內傷疾患에 운용되는 臟腑證型類型에 診斷治療過程모델의 類型을 결부시켜 治療結果에 대해 客觀的인 재연성을 일반화하기 위한 內傷疾患 診斷治療모델의 客觀化 作業을 하게 되었다.

나. 연구방법

證型的 형성원리에 따른 證型的 類型을 診斷治療過程의 단계적운동에 따른 診斷治療過程의 類型에 맞게 분류하여 診斷治療 類型에 따른 診斷治療모델을 세웠다.

1. 內傷疾患의 證型設定

臟腑證型的 設定을 이루게 하는 기존의 生理 病理 文獻을 중심으로 內傷疾患의 證型設定원리를 찾아 보았다.

2. 內傷疾患의 證型類型

臟腑證型的 類型을 이루게 하는 기존의 內科 文獻을 중심으로 內傷疾患의 證型設定원리를 맞춰 診斷治療過程에 어울릴 수 있는 臟腑證型類型을 찾아 보았다.

3. 內傷疾患의 診斷治療過程設定

內傷疾患의 診斷治療過程의 設定을 이루게 하는 기존의 診斷, 內科, 文獻을 중심으로 診斷治療過程의 형성과 區分을 통해 診斷治療知識의 단계별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診斷治療過程의 類型을 設定하였다.

4. 內傷疾患의 診斷治療過程類型

앞서의 臟腑證型類型과 診斷治療過程類

형을 바탕으로 하여 內傷疾患의 診斷治療過程의 類型을 작성하였다.

5. 內傷疾患의 診斷治療모델 類型化

內傷疾患의 診斷治療過程의 類型에 診斷治療知識의 단계별 운용을 결부시켜 內傷疾患의 診斷治療모델을 類型化하였다.

다. 研究內容

1. 內傷疾患의 證型設定

萬物變化의 內在規律은 六氣의 認識을 통하여 五運의 均衡을 유지하려는 自調規律로 설명된다. 따라서 『素問』 「天元紀大論」²⁵⁾ 에서 이를 “五運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라 하였다. 五運의 형태는 木, 火, 土, 金, 水로 이들이 整體, 恒動關係에 있어 人體내에서는 五臟六腑를 중심으로 五官(五竅), 五體, 五華으로 연계하며 이들은 相生相克의 制化狀態로 이루어진다.¹⁴⁾

그러므로 인체의 내적관찰에 있어서 生理현상은 六氣現象을 바탕으로한 五運의 亢害承制 淫勝復의 自調規律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五運의 自調規律은 인체에서 五臟의 機能으로 대표하게 된다. 이상의 五臟機能을 바탕으로 형성된 病證의 형태인 臟腑證型은 內傷疾患의 治療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臟과 腑의 관계가 臟이 주가 되고 腑가 從이 되어 臟腑證型에 있어서 五臟證型이 주도가 된다.²¹²⁶⁾ 일반적으로 證型은 病位와 病情으로 이루어져 있어 五運의 變化를 나타내는 臟腑證型은 病位인 表裏는 五行의 배속에서 病情인 寒熱虛實은 五行의 균형인 相生相克의 變化에서 찾을 수 있다.¹¹¹⁰⁾ 따라서 臟腑證型에는 五臟의

充, 華, 竅 상태와 六腑의 部位的 상태에 따라 病位인 五臟六腑가 分類되며 虛實에 따른 寒熱의 상태로 病情인 氣血陰陽의 不足, 邪留가 分類된다.

그러므로 臟腑證型은 病位인 臟腑의 分類와 病情인 氣血陰陽의 不足, 邪留의 分類 그리고 이들의 결합상태가 기초가 된다.

2. 內傷疾患의 證型類型

1) 臟腑證型的 형성

臟腑證型은 臟腑의 生理關係인 본질적인 陰精과 현상적인 陽氣의 病理的 상태를 나타내는 틀을 말한다. 이러한 臟腑의 陰精과 陽氣간의 균형상실은 陰精間的 相互資生의 關係와 陽氣間的 相互制約의 關係, 그리고 陰精과 陽氣間的 資生制約關係에서 이루어진다.²¹³⁾²¹⁾ 그리고 이 균형의 상실의 基本 틀은 陰精의 陽不足, 陰不足과 陽氣의 太過·不足에 의해 발현되는 일련의 病理變化로 나누어져 陰精 不足의 경우는 氣血陰陽의 不足이 나타나며 陽氣 不及의 경우는 臟腑의 水腫, 氣滯, 瘀血, 食積, 痰飲이 나타나며 太過의 경우는 臟腑의 內熱, 內寒, 內風, 內濕, 內火가 나타난다.²¹⁴⁾¹⁷⁾¹⁸⁾

따라서 臟腑의 음정이나 양기의 자체적 이상에 의한 五臟六腑의 자체의 병리적 상태가 證型에서는 五臟基本病症과 六腑基本病症이 된다. 또한 臟腑의 음정과 양기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虛實挾雜의 경우로 발생되는데 이는 虛寒證과 實寒證이 복합되거나, 虛熱證과 實熱證이 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虛實挾雜의 병리적 상태가 證型에서는 虛實挾雜證型이 된다. 그리고 臟腑의 음정간에, 양기간에 상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臟腑에 그치지 않고 타 臟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병인 五行상생상극

의 평형상실병과 臟腑합병은 證型에서는 五臟挾雜病症과 臟腑相合證型으로 분류된다.⁷⁾¹⁰⁾¹⁸⁾²⁰⁾

그러므로 臟腑證型의 형성은 病位인 五臟六腑와 病情인 氣血陰陽의 不足 또는 邪留(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內熱、內寒、內風、內燥、內濕、內火)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는 일반적으로 시공간적인 면이 합축되어 나타나게 된다. 공간적인 면에서의 증의 형성은 病位와 病情이 각각 1개씩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五臟基本證型、六腑基本證型(i형)이 나타나며 이에 시간적인 면이 더 고려될 때에는 病位와 病情이 각각 1개이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虛實挾雜證型(ii형)、五臟挾雜證型、臟腑相合證型(iii형)이 나타난다.

2) 臟腑證型의 類型

臟腑證型은 五運이 陰陽의 분화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어 陰陽편차의 흐름을 나타내는 八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¹⁰⁾ 臟腑證型은 다른 證型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八綱으로 類型化될 수 있다. 이 중 虛實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는 2분류로 類型化할 수 있다. 2분류의 경우는 『素問』 「通評虛實論」²⁵⁾에서는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라 하여 精氣가 虛한 경우와 邪氣가 盛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또한 虛實과 寒熱의 체용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4분류할 수 있다. 4분류의 경우는 『靈樞』 「調經論」²⁶⁾에서는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勝則外熱 陰勝則內寒”이라 하여 虛寒한 경우、虛熱한 경우、實寒한 경우、實熱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앞서의 臟腑證型의 형성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이들의 각 證型들은 五臟基本證型、六腑基本證型、虛實挾雜證型、五臟挾雜證型、臟腑相合證型으로 형성된

다.

따라서 臟腑證型에 있어서 2분류상 精氣가 虛한 경우는 臟腑의 氣血陰陽의 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邪氣가 盛한 경우에는 五臟의 邪留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 그리고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난다. 그리고 4분류상 虛寒한 경우는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虛熱한 경우는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난다. 實寒의 경우는 臟腑의 陰邪留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和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實熱의 경우는 臟腑의 陽邪留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2,4분류를 종합하여 볼 때 2분류는 基本類型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4분류는 證型의 운용원리에 어울리나 형성원리에서 나타난 실제 병리상태와는 연결에 어려움이 있어 證型의 형성원리와 운용원리에 연계를 꾀할 수 있는 6類型的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6분류는 4분류와는 허증인 경우는 陰不足、陽不足으로 나누는 것으로 不足하여 虛寒(hh형)、虛熱(hy형)에 虛寒熱挾雜(hhy형)을, 실증의 경우는 陰邪留、陽邪留로 나누는 것으로 不足하여 實

寒(sh형), 實熱(sy형)에 實寒熱挾雜(shy형)을 보완하였다. 따라서 虛寒한 경우는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hh-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hh-i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hh-iii형)이 나타나며, 虛熱한 경우는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hy-i형), 虛熱證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hy-i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hy-iii형)이 나타나며, 虛寒熱挾雜한 경우는 五臟의 기혈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hhy-i형), 虛寒熱挾雜증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hhy-i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hhy-iii형)이 나타난다. 實寒한 경우는 五臟六腑의 寒, 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sh-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sh-i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sh-iii형)이 나타나며 實熱한 경우는 五臟六腑는 熱, 火, 燥, 濕熱, 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sy-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虛實挾雜證型(sy-ii형)이 나타나며,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sy-iii형)이 나타나며 實寒熱挾雜인 경우는 五臟의 水腫, 氣滯, 瘀血, 食積, 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shy-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shy-i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shy-iii형)이 나타난다.

3. 內傷疾患의 診斷治療過程설정

1) 診斷治療過程의 형성

診斷治療過程이란 환자의 증후군을 分析

하고 이 증후군에 적합한 處方을 결정하는 過程으로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단한 후 치료하는 過程을 말한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신상에 관한 資料인 성별, 연령, 결혼, 임신, 기왕력, 체질 등을 蒐集하고 다음은 발병시부터 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의 병력인 主訴症, 발병요인, 발병기간, 병의 진행상태등을 수집하여 증후군을 모으게 된다. 이 증후군은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診斷參考用症狀, 발병일, 발병상태, 발병기간등을 나타내는것으로 환자의신상에 관한 資料를 참고하여 證型에 대한 가설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는데 이 가설은 우선 八綱辨證用症狀를 바탕으로 하여 八綱을 잘 반영하는 症狀의 유무를 파악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證型的 구성에 직접 관계되는 症狀를 確認하는 過程을 거치거나 또는 證型을 바로 確認하여 證型을 결정하며 이 확정된 證型的 표本을 구분하여 처방을 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處方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¹⁰⁾¹¹⁾

- *환자의 신상資料 - 환자의 등록 및 정리
- *主訴症 |
- *환자의 診斷參考用症狀 - 가설의 설정
- *現病歷 |
- *八綱辨證用症狀 - 가설에 따른 증후 蒐集 |
- *確認用症狀 - 가설確認을 위한 추가 症狀수집 |
- *證型형성資料 - 가설確認 후 證型결정 |
- 진단 끝 진단결과에 따른 處方결정



상의 診斷治療過程을 오운개념에 의해 형성된 臟腑가 발현하는 비정상적인 병리적 현상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볼 때 臟腑변증론치가 운용되어진다. 따라서 臟腑변증론치의 전 過程을 段階別 운용상태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四診에 의해 임상증후군을 모은다.

이 때 환자가 주되게 호소하는 症狀 즉 主訴症을 중심으로 하여 변증에 필요한 자각症狀 및 자각할 수 없는 일반症狀까지 모두 수집한다.

(2) 臟腑변증방법을 통해 임상증후군을 分析한다.

① 八綱변증을 이용하여 증후군이 어디에 속하는지 表裏, 寒熱, 虛實에 따라 分析한다.

② 八綱변증의 결과를 病位와 病情에 따라 분류결합한다. 病位는 表裏에 따라, 病情은 寒熱虛實에 따라 虛寒, 虛熱, 實寒, 實熱, 虛寒熱挾雜, 實寒熱挾雜으로 나누어 陰陽적 편차를 인식한다.

③ 寒熱挾雜의 경우에는 寒熱의 主次와 標本을 고려한다.

④ 虛實에 따른 寒熱의 상태로 病情인 氣血陰陽의 不足, 邪留가 분류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虛寒	陽虛
虛熱	陰虛
虛寒熱挾雜 (寒>熱)	氣虛
虛寒熱挾雜 (寒<熱)	血虛
實寒	寒, 風寒, 風濕
實熱	熱, 火, 燥, 風, 濕 熱, 風熱
實寒熱挾雜	痰飲, 食積, 瘀血, 氣滯, 水腫

⑤ 病位의 구분에 따라 臟腑기능의 발현 부위 즉 五臟의 充, 華, 竅에 나타난 症狀과 六腑의 부위적 상태를 결부시켜 어느 臟腑의 병인지 分析한다. 이 경우 한 臟腑 외에도 두 臟腑와 함께 관련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⑥ 臟腑에 대한 파악이 된 후에는 이에 따른 氣血陰陽의 不足, 邪留의 연계를 파악한다. 이 경우에 虛實挾雜에 따른 경우도 고려하여 虛實의 標本 主次에 따라 치료의 主次와 標本을 세워야 한다.

⑦ 이상을 종합해 보면 病位인 五臟六腑와 病情인 氣血陰陽의 不足, 邪留의 결합에 의한 臟腑基本證型을 마련한다. 예를 들면 肝의 病位와 陰虛의 病情이 결합하여 肝陰虛, 肝의 病位와 風의 病情이 결합하여 肝風內動을 이룬다.

⑧ 病位와 病情의 挾雜에 따라 病位와 病情이 각각 1개이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虛實挾雜證型, 臟腑挾雜證型,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挾雜관계에 따른 標本과 主次를 고려한 상태에서 臟腑證型의 결과가 결정된다.

(3) 臟腑변증의 결과에 따라 治則과 治法을 결정한다.

(4) 이상의 治則과 治法에 적합한 處方을 설정하여 환자의 특성에 따라 가감을 한다.

2) 診斷治療지식의 분류

診斷治療지식은 가설을 세우는 지식, 가설을 確認하는 지식, 가설을 결정하는 지식인 변증지식과 論治지식으로 분류된다.

(1) 변증지식의 분류

한의 內傷疾患진단에 필요한 지식은 진단過程에 따라 분류하면 a. 診斷參考用資

料 b.現病歷資料 c.主訴症에 따른 가설생성資料 d.八綱辨證用資料 e.八綱 氣血、病邪 및 臟腑의 確認用資料 f.證型の 確認用資料 g.八綱의 가설결정資料 h.氣血 및 病邪의 가설생성資料 i.臟腑의 가설생성資料 j.證型の 가설결정資料등으로 나눌 수 있다. 臟腑證型の 형성에서 나타난 病情인 氣血陰陽、邪留를 診斷治療지식에서는 氣血陰陽의 不足을 氣血로, 邪留를 病邪로 사용하고 있다.

a. 診斷參考用資料

환자의 등록이 끝난 뒤 실질적인 진단의 시작과 함께 환자로 부터 수집되는 資料로서 성별、연령、임신、기왕력、체질등을 고려하였다.

이들의 資料는 진단에 결정적인 정보로 이용되지는 않지만 現病歷이 수집된 후 그 資料와의 관련성에 따라 진단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주거나 論治의 결정에 處方의 전반적인 구성에 참고로 삼을 수 있었다. 기왕력、체질은 八綱의 가설결정에, 성별、연령、임신은 최종의 證型을 確認하는 데 참고가 된다.

b. 現病歷資料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게 될 때 까지의 병력에서 主訴症을 제외한 主訴症의 발병기간、발병원인、병의 진행상태는 진단過程의 단계적 운용에 따라 그 가치성을 부각되는 데 발병기간은 팔강증 虛實의 결정에, 발병요인은 氣血과 病邪의 결정에, 병의 진행상태는 證型の 挾雜過程의 주차를 결정하는 가설생성에 역할을 한다.

c. 主訴症에 따른 가설생성資料

主訴症은 症狀의 특징에 따라 證型、臟腑、氣血、病邪、八綱의 가설을 각각 생성될 수 있으며 診斷治療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主訴症이 나타내는 陰陽의 편차를 조절하기 위한 處方을 결정하는 일이기애 가설생성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가진다.

d. 八綱辨證用資料

八綱辨證用資料는 主訴症의 가설생성에 가설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의 문진、시진、촉진을 통하여 수집되어진다. 또한 八綱辨證用資料의 운용은 가설생성의 資料로만 이용되고 있지 않고 證型の 전체적 흐름을 판별하는 의미도 있어 가설생성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確認하는 역할도 한다.

e. 八綱、氣血 및 病邪의 確認用資料

主訴症의 가설생성에서 나타나는 證型을 결정하기 위해 환자에게서 그 八綱、氣血 및 病邪에 관련된 症狀의 존재여부를 確認하는 資料이다.

f. 證型の 確認用資料

主訴症의 가설생성에서 나타나는 證型을 결정하기 위해 환자에게서 그 證型에 관련된 症狀의 존재여부를 確認하는 資料이다.

g. 八綱의 가설결정資料

八綱確認用資料에 의하여 確認이 끝난 寒熱虛實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八綱의 복합적 관계를 결정하는 資料이다.

h. 氣血 및 病邪의 가설생성資料

八綱인식용資料에 의하여 確認이 끝난 八綱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氣血、病邪의 가설을 생성하는 資料이다.

i. 臟腑의 가설생성資料

氣血 및 病邪確認用資料에 의하여 確認이 끝난 氣血 및 病邪를 바탕으로하여 臟腑의 가설을 생성하는 資料이다.

j. 證型的 가설결정資料

氣血 및 病邪와 臟腑의 確認用資料에 의하여 確認이 끝난 氣血 및 病邪와 臟腑의 결합으로 證型을 결정하는 資料이다.

(2) 論治지식의 분류

한 의 內傷疾患치료에 필요한 지식은 치료過程에 분류하여 보면 a.基本證型の 치료원칙 및 基本處方資料 b.挾雜證型の 치료원칙 및 處方資料 c.基本證型和 挾雜證型的 주증에 따른 處方資料등이다.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할 處方の 약물량은 환자의 診斷參考용 資料중 연령, 現 病歷의 진행상태등을 참조하게 된다.

a 基本證型の 치료원칙 및 基本處方資料
基本證型的 치료원칙 및 基本處方은 병증의 흐름을 確認할 수 있는 론치지식의 基本이 되는 資料이다.

b. 挾雜證型的 치료원칙 및 處方資料
挾雜證型的 치료원칙 및 處方은 현실적으로는 基本證型的 치료원칙 및 基本處方을 복합시켜 구성되는 것이나 실제 處方の 운용에 있어서는 挾雜證型에 어울리게 處方이 따로 구성되어져 있어 이에 맞게 기존의 處方을 찾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c. 基本證型和 挾雜證型的 주증에 따른 處方資料

확정된 각 證型에는 이에 따른 基本證型和 挾雜證型的 處方이 제시되는데 이 證型的 주증에 따라 基本處方과 挾雜證型的 處方에서 이의 구체적인 상태가 고려된 실제 處方을 운용하는 최종의 處方이다.

3) 診斷治療過程의 분류

診斷治療過程의 각 개념들은 모두 가설과 결론으로 나누어지며 가설이 결론으로 바뀌는 過程에서는 외부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하여 確認하기도 하고,생성된 가설을 그대로 결론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각 段階別 개념은 다음 단계의 가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의 診斷治療過程에 대한 지식표현방향^{11,16)}을 그림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圖1).

따라서 診斷治療過程의 지식표현방향은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寒熱, 虛實의 가설이 생성되어 생성된 가설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단계, 둘째 寒熱, 虛實의 결과에 따라 八綱의 가설이 생성되어 생성된 가설을 確認하여 결정하는 단계, 셋째 氣血, 病邪의 결과에 따라 臟腑의 가설이 생성되어 생성된 가설을 確認하여 결정하는 단계 다섯째 氣血, 病邪의 결과와 臟腑의 결과에 따라 證型的 가설이 생성되어 생성된 가설을 確認하여 결정하는 단계, 여섯째 證型的 결과에 따라 處方이 제시되는 단계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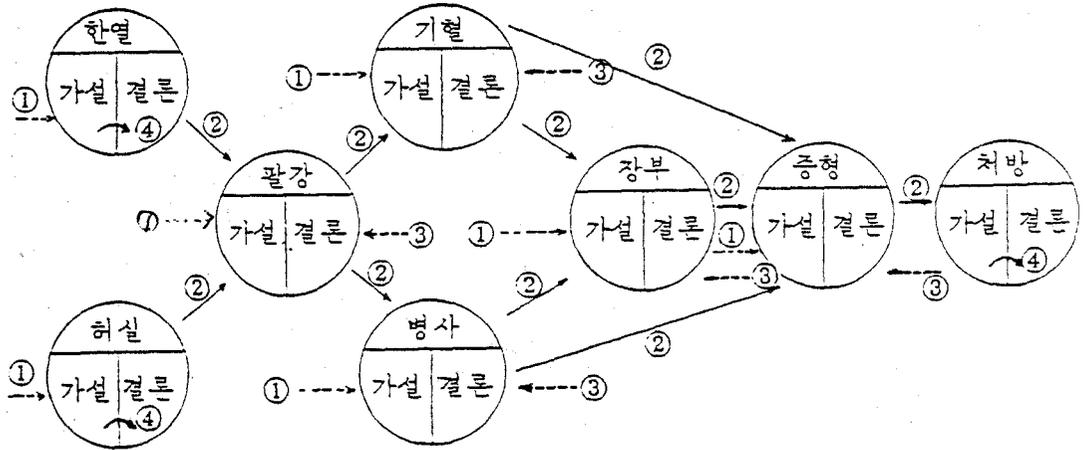
4) 診斷治療지식의 段階別운용

의사가 환자로부터 수집하게 된 診斷治療過程의 각 단계와 관련된 診斷治療지식을 운용하는 데에는 우선 八綱을 결정하고 이에 氣血, 病邪 및 臟腑에 대한 결정을 하며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하여 證型和 處方을 결정하는 운용過程을 거치게 된다. 이상의 段階別운용을 지식표현방향^{11,15)}에 따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圖2).

따라서 八綱은 도2의 1,2단계에서 결정되어지는 데 主訴症 또는 八綱辨證型資料 등으로 부터 얻은 寒, 熱, 虛, 實 각각에 대한 값을 기초로 하여 八綱의 가설을 생성하였고 이와 같은 八綱의 가설은 八綱가설결정資料에 의해 가설확립이 이루어지며 八綱確認用症狀를 이용하여 確認함으로써 虛寒, 虛熱, 實寒, 實熱, 虛寒熱挾雜, 實寒熱挾雜으로 결정된다.

氣血은 도2의 3단계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도2의 1,2단계인 八綱의 결과 또는 主訴症를 바탕으로 하여 八綱이 허증으로 나타난 경우 虛寒, 虛熱, 虛寒熱挾雜등에 따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제 4 단계 제 5 단계 제 6 단계



① 입력된 資料로부터 가설을 생성하는 경우, ②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결론으로부터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는 경우, ③생성된 가설을 確認하여 결론으로 결정하는 경우, ④생성된 가설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경우

(圖1) 診斷治療過程에 대한 知識表現方向

라 虛寒은 陽虛로 虛熱은 陰虛로 虛寒熱挾雜은 寒熱의 편차에 따라 한이 주도되면 氣虛, 熱이 주도되면 血虛의 가설을 생성한다. 이러한 氣血의 가설은 氣血確認用症狀을 이용하여 確認함으로써 氣虛, 血虛, 陰虛, 陽虛로 결정된다.

病邪도 도2의 3단계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도2의 1,2단계인 八綱의 결과 또는 主訴症을 바탕으로 하여 八綱이 실증으로 나타난 경우 實寒, 實熱, 實寒熱挾雜등에 따라 實寒은 寒, 寒濕으로 實熱은 熱, 火, 燥, 風, 濕熱로 實寒熱挾雜은 氣滯, 痰飲, 瘀血, 食積, 水腫으로 病邪의 가설을 생성한다. 이러한 病邪의 가설은 病邪確認用症狀을

이용하여 確認함으로써 風, 寒, 濕熱, 寒濕, 燥, 熱, 火, 痰飲, 食積, 瘀血, 氣滯, 水腫으로 결정된다.

臟腑는 도2의 4단계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도2의 단계인 氣血, 病邪의 결과 또는 主訴症을 바탕으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생성한다. 이러한 臟腑의 가설은 臟腑確認用症狀을 이용하여 確認함으로써 간, 심, 비, 폐, 신, 소장, 대장, 위, 방광, 삼초으로 결정된다.

證型은 도2의 5단계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도2의 3단계인 氣血, 病邪의 결과 4단계인 장부의 결과의 결합 또는 主訴症을 바탕으로 하여 證型의 가설이 생성한다.

제 1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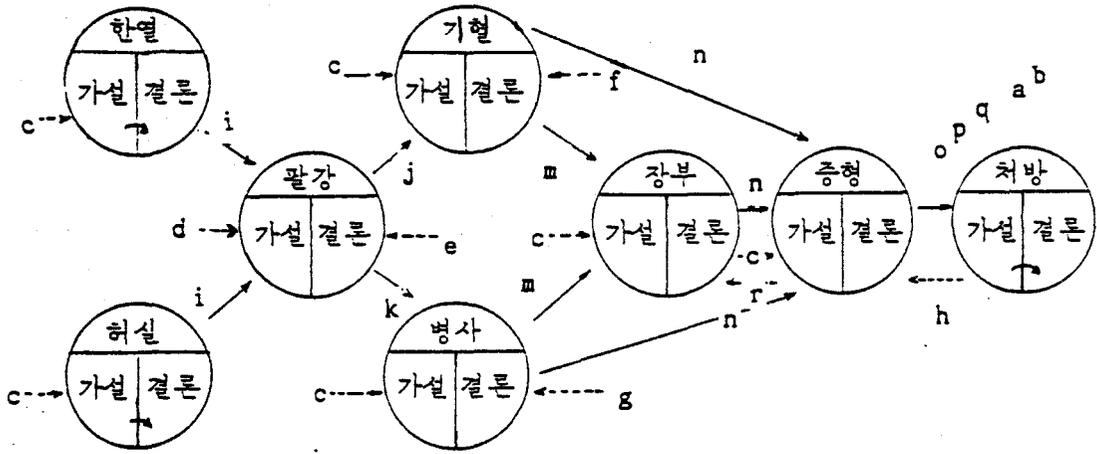
제 2 단계

제 3 단계

제 4 단계

제 5 단계

제 6 단계



a. 診斷參考用資料 b. 現病歷資料 c. 主訴症에 따른 가설 생성資料 d. 八綱辨證用資料 e. 八綱의 確認用資料 f. 氣血의 確認用資料 g. 病邪의 確認用資料 h. 證型의 確認用資料 i. 八綱의 가설 결정資料 j. 氣血의 가설 생성資料 k. 病邪의 가설 생성資料 m. 臟腑의 가설 생성資料 n. 證型의 가설 생성資料 o. 基本證型의 치료원칙 및 基本處方資料 p. 挾雜證型의 치료원칙 및 處方資料 q. 基本證型과 挾雜證型의 주증에 따른 處方資料

(圖2) 診斷治療지식의 段階別운용

이러한 證型의 가설은 證型確認用症狀을 이용하여 確認함으로써 證型으로 결정된다.

또한 氣血이나 病邪 그리고 臟腑가 각 1개로 결합되는 경우 基本證型으로 결정되고 氣血이나 病邪 그리고 臟腑가 2개로 결합되는 경우 挾雜證型으로 결정된다.

挾雜證型은 氣血이나 病邪가 1개이고 臟腑가 2개인 五臟挾雜證型, 氣血이나 病邪가 2개이고 臟腑가 1개인 虛實挾雜證型, 病邪가 1개이고 서로 표리관계인 장과 부인 臟腑相合證型으로 결정된다.

處方은 證型의 결과에 의하여 도2의 6단

계에서 결정되는데 基本證型인 경우에는 基本證型에 따른 치료원칙, 基本處方을 결정된다. 또한 挾雜證型인 경우에는 挾雜을 형성한 각 證型의 處方을 기준으로 삼아 處方이 그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 중 主訴症중 어느 한 症狀이 주도되는 경우에는 그 症狀에 적용되는 약물이 주축을 이룬 處方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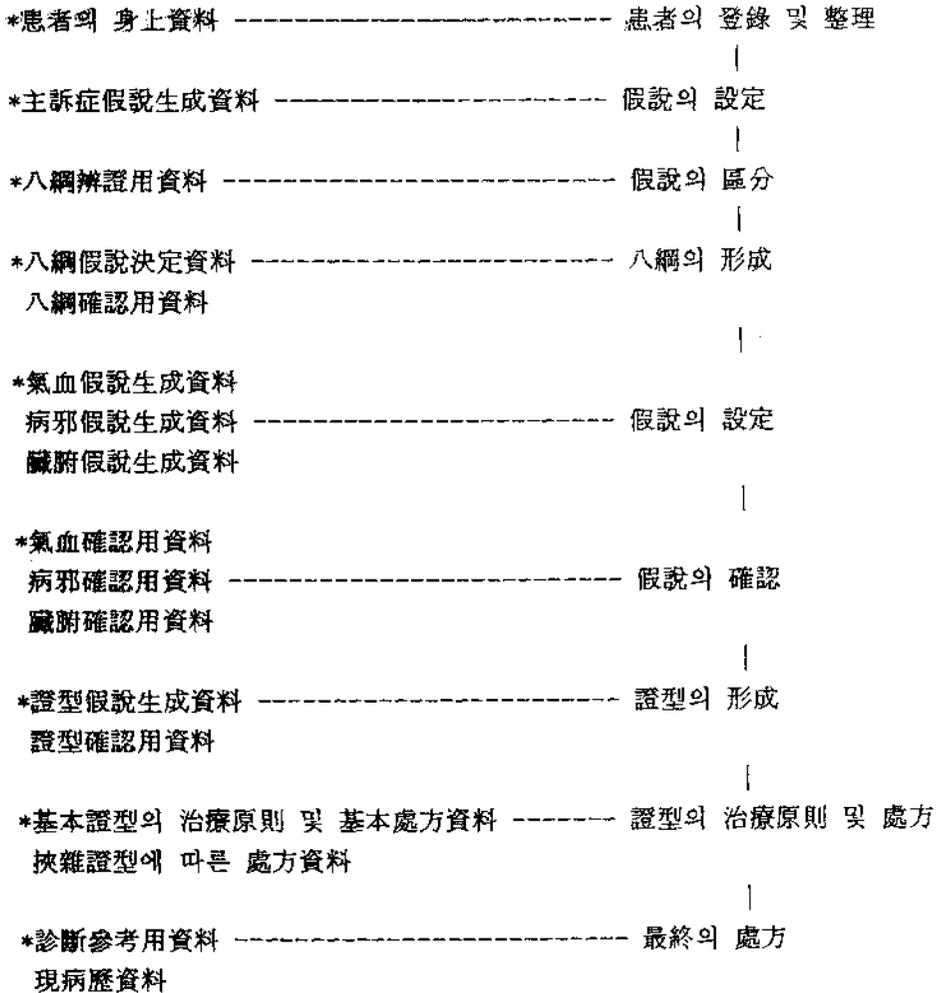
4. 內傷疾患의 診斷治療過程類型

臟腑證型의 형성過程을 참고로 하여 診斷治療지식의 운용방식에 따른 단계적 진행에 따라 診斷治療過程을 設定하였다.

1) 診斷治療過程의 分析

內傷疾患의 診斷治療過程은 主訴症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설의 생성을 가지고 八綱 변증운용資料를 가지고 가설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證型구성에 간접관계되는 八綱과 證型구성에 직접관계되는 氣血, 病邪, 臟腑를 確認하여 결정한다. 이들의 결합

을 통하여 證型을 형성하며 이 확정된 證型을 바탕으로 處方이 형성되고 診斷參考資料의 연령, 체질과 現病歷의 진행상태등을 참조로 하여 處方의 약물량이 정해져 최종處方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診斷治療過程을 지식표현방향과 연계시켜 보면 진단의 전 과정의 흐름을 보다 쉽



(圖3)

게 分析할 수 있게 된다^{11,12}).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圖3).

2) 診斷治療過程의 類型

기존의 內傷疾患 診斷治療過程에 대한 인식은 일률적 단계진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이의 운용에 있어서 지식의 중첩성과 혼란성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앞서의 診斷治療過程의 分析을 바탕으로 診斷治療過程의 상황을 主訴症에서 가설設定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八綱 가설만 된 경우, 氣血이나 病邪의 가설만 된 경우, 病位의 가설만 된 경우, 病位와 八綱만 된 경우, 證型의 가설이 設定된 경우 등 다양하게 분류하여 일률적 단계진행에서 벗어나는 診斷治療過程의 類型을 형성하였다.

-가설設定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診斷治療모델(a형)-

主訴症을 중심으로 한 가설設定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일반적으로는 主訴症을 중심으로 하여 診斷參考用資料, 現病歷資料에서 가설의 設定이 이루어지나 이에서 아무런 가설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로 부터 얻을 수 있는 八綱辨證資料를 통하여 가설이 設定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八綱이 된다. 八綱의 형성을 바탕으로 하여 氣血, 病邪의 가설이 設定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氣血, 病邪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證型이 형성되며 이 확정된 證型을 바탕으로 處方이 형성되고 診斷參考用資料의 연령, 체질과 現病歷資料의 병진행상태등을 참조로 하여 處方의 약물량이 정해져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

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圖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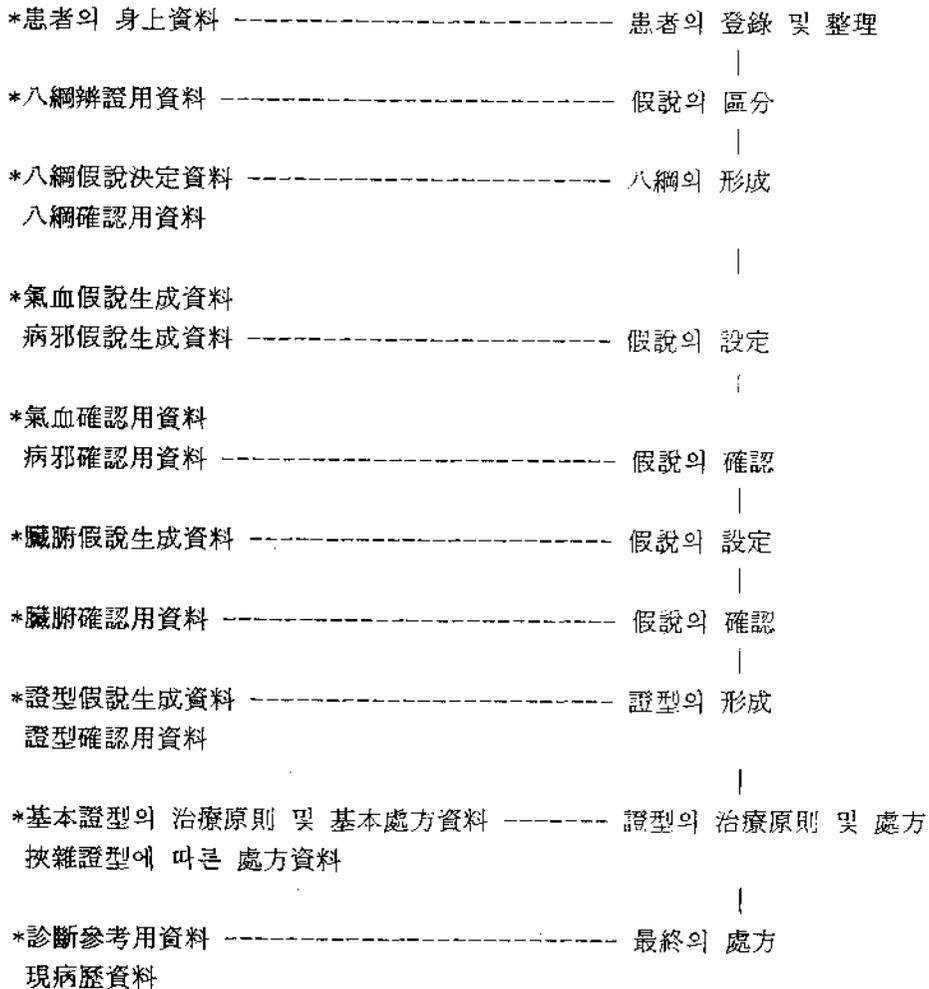
-가설設定은 八綱가설만 된 경우의 모델(b형)-

主訴症을 중심으로 한 가설設定은 八綱으로만 된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辨證用資料로 가설의 구분을 한 다음 八綱 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八綱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氣血, 病邪의 가설이 設定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氣血, 病邪가 결정된다. 또 氣血, 病邪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設定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證型이 형성되며 이 확정된 證型을 바탕으로 處方이 형성되고 診斷參考用資料의 연령, 체질과 現病歷資料의 병진행상태등을 참조로 하여 處方의 약물량이 정해져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圖5).

-가설설정은 氣血이나 病邪만 된 경우의 診斷治療모델(c형)-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氣血이나 病邪만 된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辨證用자료로 가설의 구분을 한 다음 氣血, 病邪 確認用 자료의 確認過程을 거쳐 氣血, 病邪가 결정된다. 또 氣血, 病邪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 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證型이 형성되며 이 확정된 證型을 바탕으로 處方이 형성되고 診斷參考用資料의 연령, 체질과 現病歷資料의 병진행상태등을 참조로 하여 處方의 약물량이 정해져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圖6).

-가설설정은 病位만 된 경우의 診斷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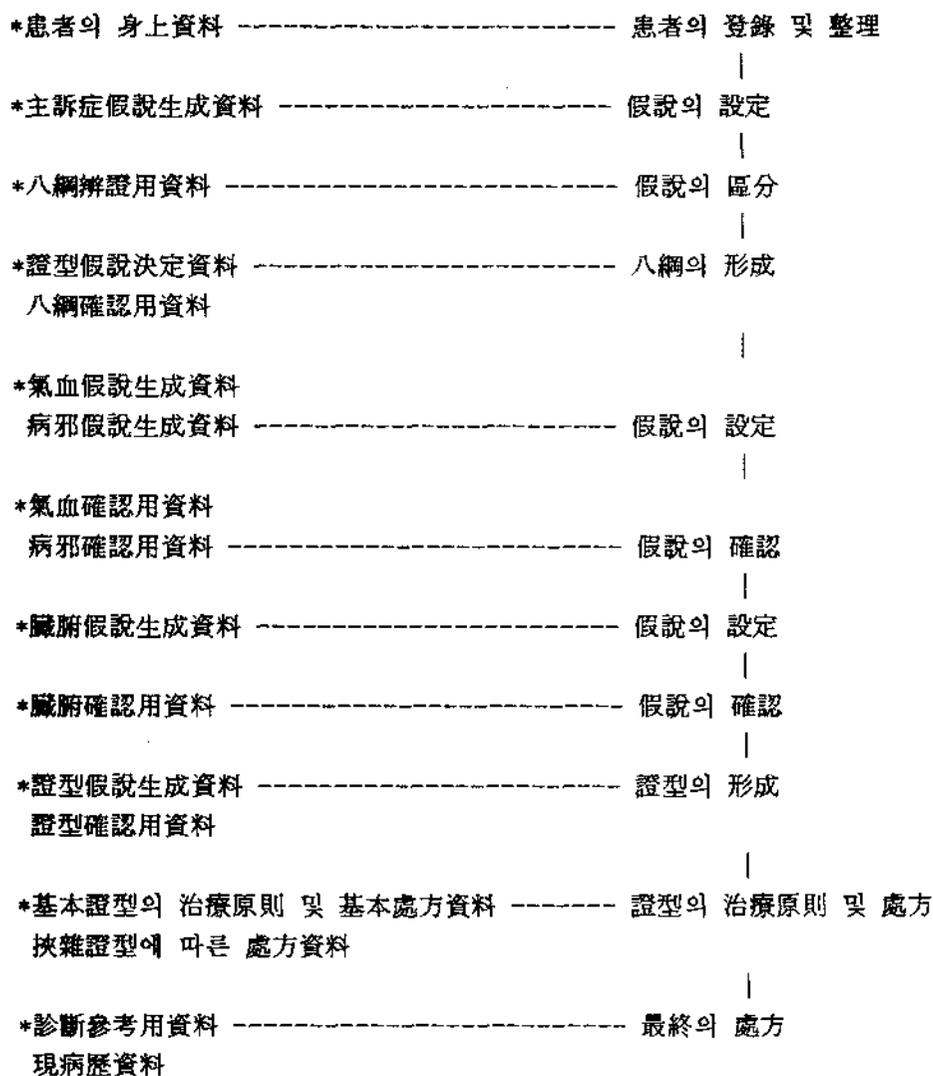


(圖4)

療모델(d형)-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位만 된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臟腑確認用 자료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辨證用자료를 통하여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八綱이 결정된다. 八綱의 형성을 바탕으로 하여 氣血、病邪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氣血、病邪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證型이 형성되며 이 확정된 證型을 바탕으로 處方이 형성되고 診斷參考用資料의 연령, 체질과 現病歷資料의 병진행상태등을 참조로 하여 處方의 약물량이 정해져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이를 도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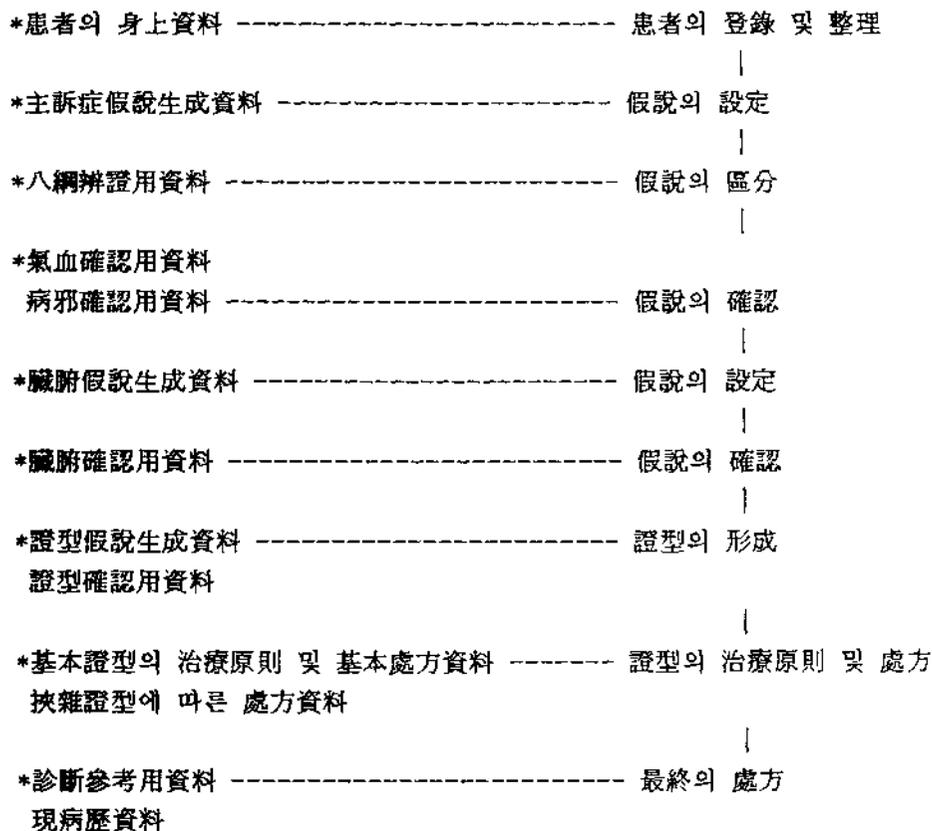
(圖5)

하면 다음과 같다(圖7).

-가설 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된 경우의
 診斷治療모델(db형)-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 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된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臟腑
 確認用자료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辨證用자료로 가설의 구분을 한 다음
 八綱確認用자료의 確認過程을 거쳐 八綱이
 결정된다. 八綱의 형성을 바탕으로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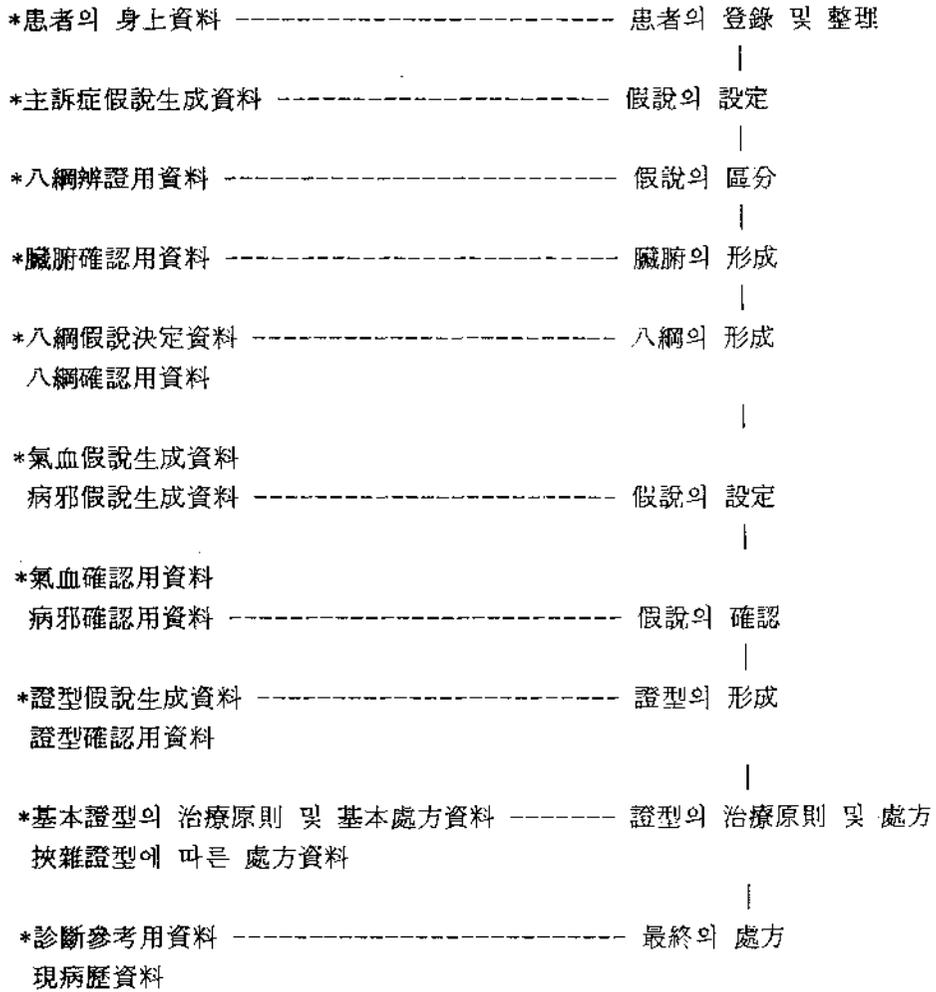


(圖6)

氣血、病邪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氣血、病邪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證型이 형성되며 이 확정된 證型을 바탕으로 處方이 형성되고 診斷參考用資料의 연령、체질과 現病歷資料의 병진행상태등을 참조로 하여 處方의 약물량이 정해져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圖8).

-가설설정은 證型인 경우의 診斷治療모델(e형)-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證型인 경우의 診斷治療의 과정은 八綱辨證用자료로 가설의 구분을 한 다음 證型確認用자료의 確認過程을 거쳐 證型이 결정된다. 證型의 형성이 이루어지면 확정된 證型을 바탕으로 處方이 형성되고 診斷參考用資料의 연령、체질과 現病歷資料의 병진행상태등을 참조로 하여 處方의 약물량이 정해져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圖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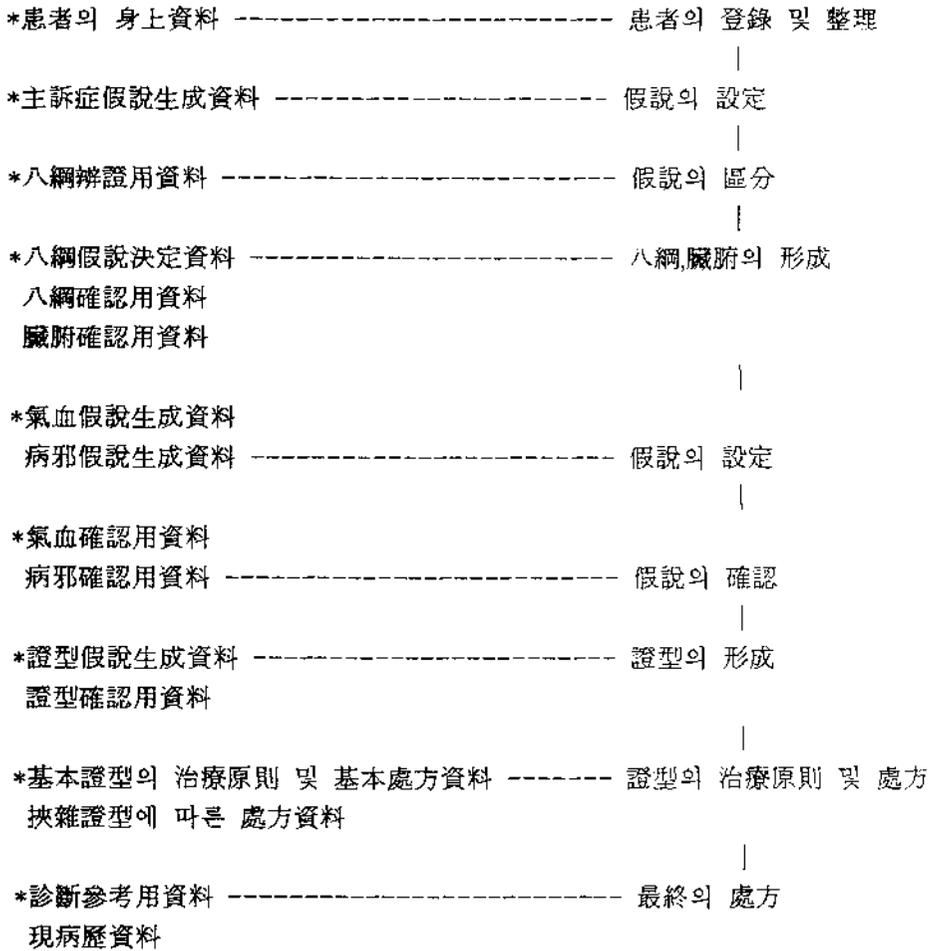


(圖7)

5. 內傷疾患의 診斷治療모델 類型化

臟腑證型의 18類型과 診斷治療過程의 6類型을 종합하여 보던 內傷疾患 診斷治療 모델의 類型化를 찾을 수 있는 데 108개가 나타난다. 虛寒證인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hh-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hh-ii형),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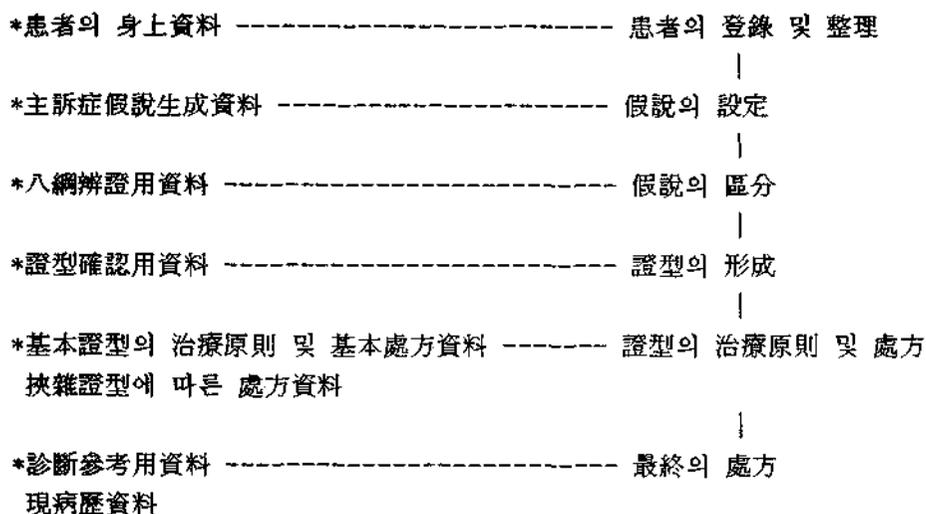
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hh-iii형), 虛熱證인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hy-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hy-i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hy-iii型), 虛寒熱挾雜證인 五臟의 기, 血不足으로 형성된 基



(圖8)

本證型(h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h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hhy-iii 型)에 診斷治療過程의 상황을 主訴症에서 가설설정(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八綱가설만 된 경우, 氣血이나 病邪의 가설만 된 경우, 病位의 가설만 된 경우, 病位와 八綱의 가설만 된

경우, 證型가설이 설정으로 類型화된 경우와 實寒證인 五臟六腑의 寒, 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sh-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sh-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sh-iii 型), 實熱證인 五臟六腑의 熱, 火, 燥, 濕熱, 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sy-i 型), 앞서의 基本



(圖9)

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s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sy-iii 型), 實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s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s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shy-iii 型)에 診斷治療過程의 상황을 主訴症에서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八綱가설만 된 경우, 氣血이나 病邪의 가설만 된 경우, 病位의 가설만 된 경우, 病位와 八綱의 가설만 된 경우, 證型의 가설이 설정으로 類型화된 경우이다.

1) 虛寒證의 診斷治療過程모델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虛寒證인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

本證型(a-hh-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a-hh-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a-hh-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虛寒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主訴症을 중심으로 하여 診斷參考用資料、現病歷資料에서 가설의 설정이 이루어지나 이에서 아무런 가설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八綱辨證用자료를 통하여 虛와 寒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虛寒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陽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陽虛가 결정된다. 또 陽虛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寒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

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八綱가설만 주어지고 虛寒證인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b-hh-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b-hh-ii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b-hh-iii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 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八綱만 주어지고 虛寒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虛寒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陽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陽虛가 결정된다. 또 陽虛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寒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氣血陰陽의 不足만 주어지고 虛寒證인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c-hh-i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c-hh-i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c-hh-iii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陽의 不足만 주어지고 虛寒證이 형성되는 경우

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陽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陽虛가 결정된다. 또 陽虛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寒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位만 주어지고 虛寒證인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d-hh-i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d-hh-ii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d-hh-iii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 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位만 주어지고 虛寒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臟腑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虛와 寒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虛寒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陽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陽虛가 결정된다. 또 陽虛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寒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주어지고

虛寒證인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db-hh-i형),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db-hh-ii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db-hh-iii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주어지고 虛寒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臟腑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虛寒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陽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陽虛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寒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證型만 주어지고 虛寒證인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e-hh-i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e-hh-ii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e-hh-iii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證型만 주어지고 虛寒證이 生成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證型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科程을 거쳐 虛寒證의 證型이 결정된다. 이는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2) 虛熱證의 診斷治療過程모델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虛熱證인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a-hy-i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a-hy-ii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a-hy-iii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虛熱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主訴症을 중심으로 하여 診斷參考用資料, 現病歷資料에서 가설의 설정이 이루어지나 이에서 아무런 가설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로 부터 얻을 수 있는 八綱辨證用資料를 통하여 虛와 熱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虛熱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陰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陰虛가 결정된다. 또 陰虛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熱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陰不足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八綱가설만 주어지고 虛熱證인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b-hy-i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b-hy-ii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b-hy-iii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八綱만 주어지고 虛熱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

治療의 과정은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虛熱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陰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陰虛가 결정된다. 또 陰虛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熱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氣血陰陽의 不足만 주어지고 虛熱證인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c-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c-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c-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氣血陰陽의 不足만 주어지고 虛熱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과정은 八綱辨證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陰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陰虛가 결정된다. 또 陰虛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熱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位만 주어지고 虛熱證인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d-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

實挾雜證型(d-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d-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 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位만 주어지고 虛熱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과정은 臟腑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辨證用資料를 통하여 虛와 熱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虛熱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陰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陰虛가 결정된다. 또 陰虛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熱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주어지고 虛熱證인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db-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db-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d-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주어지고 虛熱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과정은 臟腑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辨證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虛熱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陰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陰虛로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熱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

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證型만 주어지고 虛熱證인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e-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e-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e-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 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證型만 주어지고 虛熱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辨證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證型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虛熱證의 證型이 결정된다. 이는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3) 虛寒熱挾雜證의 診斷治療過程모델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虛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a-h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a-h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a-h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虛寒熱挾雜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主訴症을 중심으로 하여 診斷參考用資料、現病歷資料에서 가설의 설정이 이루어지나 이에서 아무런 가설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로 부터 얻을 수 있는 八綱確辨證用資料를 통하여 虛와 寒、熱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虛寒熱挾雜證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氣虛、血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氣虛、血虛가 결정된다. 또 氣虛、血虛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寒熱挾雜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八綱가설만 주어지고 虛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b-h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b-h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b-h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八綱만 주어지고 虛寒熱挾雜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虛寒熱挾雜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氣虛、血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氣虛、血虛가 결정된다. 또 氣虛、血虛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寒熱挾雜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氣血陰陽의 不足만 주어지고 虛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c-h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c-h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c-h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氣血陰陽의 不足만 주어지고 虛寒熱挾雜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辨證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氣虛、血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氣虛、血虛가 결정된다. 또 氣虛、血虛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寒熱挾雜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位만 주어지고 虛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d-h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d-h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d-h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位만 주어지고 虛寒熱挾雜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臟腑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辨證用資料를 통하여 虛와 寒、熱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虛寒熱挾雜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氣虛、血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氣虛、

血虛가 결정된다. 또 氣虛、血虛를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寒熱挾雜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 가설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주어지고 虛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db-h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db-h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

主訴症을 중심으로 한 가설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주어지고 虛寒熱挾雜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科程은 臟腑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科程을 거쳐 虛寒熱挾雜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하여 氣虛、血虛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科程을 거쳐 氣虛、血虛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虛寒熱挾雜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重刑,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 가설설정은 證型만 주어지고 虛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e-h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c-h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e-h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

의 診斷治療모델 -

主訴症을 중심으로 한 가설설정은 證型만 주어지고 虛寒熱挾雜證이 생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科程은 八綱辨證用資料의 確認科程을 거쳐 證型の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科程을 거쳐 虛寒熱挾雜證의 證型이 결정된다. 이는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4) 實寒證의 診斷治療過程모델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實寒證인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a-sh-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a-sh-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a-sh-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 한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實寒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主訴症을 중심으로 하여 診斷參考用資料、現病歷資料에서 가설의 설정이 이루어지나 이에서 아무런 가설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로 부터 얻을 수 있는 八綱辨證用資料를 통하여 實과 寒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寒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寒、寒濕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寒、寒濕이 결정된다. 또 寒、寒濕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寒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八綱가설만 주어지고 實寒證인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b-sh-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b-sh-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b-sh-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 한 가설설정은 八綱만 주어지고 實寒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寒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寒、寒濕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寒、寒濕이 결정된다. 또 寒、寒濕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寒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邪만 주어지고 實寒證인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c-sh-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c-sh-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c-sh-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 한 가설설정은 病邪만 주어지고 實寒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辨證用資料의 確認過程

을 거쳐 寒、寒濕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寒、寒濕이 결정된다. 또 寒、寒濕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寒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位만 주어지고 實寒證인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d-sh-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d-sh-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d-sh-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位만 주어지고 實寒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臟腑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辨證用資料를 통하여 實과 寒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寒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寒、寒濕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寒、寒濕이 결정된다. 또 寒、寒濕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寒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주어지고 實寒證인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db-sh-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db-sh-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db-sh-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주어지고 實寒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臟腑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寒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寒、寒濕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寒、寒濕이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寒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證型만 주어지고 實寒證인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e-sh-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e-sh-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e-sh-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證型이 주어지고 實寒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辨證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證型的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寒證의 證型이 결정된다. 이는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

정된다.

5) 實熱證의 診斷治療過程모델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實熱證인 五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a-s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a-s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a-s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實熱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主訴症을 중심으로 하여 診斷參考用資料、現病歷資料에서 가설의 설정이 이루어지나 이에서 아무런 가설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로 부터 얻을 수 있는 八綱辨證用資料를 통하여 實와 熱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熱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熱、火、燥、濕熱、風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熱、火、燥、濕熱、風이 결정된다. 또 熱、火、燥、濕、熱、風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熱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八綱가설만 주어지고 實熱證인 五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b-s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b-sy-

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b-s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八綱만 주어지고 實熱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熱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熱、火、燥、濕熱、風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熱、火、燥、濕熱、風이 결정된다. 또 熱、火、燥、濕熱、風寒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熱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邪만 주어지고 實熱證인 五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c-s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c-s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c-s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邪만 주어지고 實熱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辨證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熱、火、燥、濕熱、風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熱、火、燥、濕熱、風이 결정된다. 또 熱、火、燥、濕熱、風寒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熱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

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位만 주어지고 實熱證인 五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d-s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d-s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d-s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位만 주어지고 實熱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臟腑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辨證用資料를 통하여 實과 熱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熱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熱、火、燥、濕熱、風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熱、火、燥、濕熱、風이 결정된다. 또 熱、火、燥、濕熱、風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熱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주어지고 實熱證인 五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db-s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db-s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db-s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주어지고 實熱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臟腑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熱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熱、火、燥、濕熱、風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熱、火、燥、濕熱、風이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熱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證型만 주어지고 實熱證인 五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e-s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e-s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c-s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證型만 주어지고 實熱證이 生成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辨證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證型的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熱證의 證型이 결정된다. 이는 五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6) 實寒熱挾雜證의 診斷治療過程모델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實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a-s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a-s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a-s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實寒熱挾雜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主訴症을 중심으로 하여 診斷參考用資料、現病歷資料에서 가설의 설정이 이루어지나 이에 아무런 가설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八綱辨證用資料를 통하여 實과 寒、熱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寒熱挾雜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이 결정된다. 또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寒熱挾雜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八綱가설만 주어지고 實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b-s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b-s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b-s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八綱만 주어지고 實寒熱挾雜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寒熱挾雜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이 결정된다. 또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寒熱挾雜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邪만 주어지고 實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c-s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c-s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c-s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邪만 주어지고 實寒熱挾雜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辨證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이 결정된다.

또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寒熱挾雜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位만 주어지고 實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d-s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d-s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d-s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位만 주어지고 實寒熱挾雜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臟腑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辨證用資料를 통하여 實、寒、熱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寒熱挾雜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이 결정된다. 또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臟腑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寒熱挾雜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

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주어지고 實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db-s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db-s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db-s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病位와 八綱만 주어지고 實寒熱挾雜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臟腑確認用資料를 통하여 臟腑를 결정된다. 또 八綱確認用資料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寒熱挾雜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이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實寒熱挾雜證의 證型이 형성되어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가설설정은 證型만 주어지고 實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e-shy-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e-shy-ii 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e-shy-iii 型)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모델-

主訴症을 중심으로한 가설설정은 證型만 주어지고 實寒熱挾雜證이 형성되는 경우의 診斷治療의 過程은 八綱辨證用資料의 確認

過程을 거쳐 證型의 가설이 설정되어 이의 確認過程을 거쳐 實寒熱挾雜證의 證型이 결정된다. 이는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종의 處方이 결정된다.

6. 總括의 內容

臟腑證型類型에 診斷치료과정 모델의 類型을 결부시켜 內傷疾患의 치료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재연성을 일반화하기 위한 診斷治療모델의 類型化 작업을 하게 되었다.

臟腑證型에 있어서 證型의 類型은 虛寒、虛熱、虛寒熱挾雜、實寒、實熱、實寒熱挾雜으로 보아 實寒한 경우는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虛熱한 경우는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나며 虛寒熱挾雜한 경우는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상생관계의 五臟사이의 五臟挾雜證型이 나타난다. 實寒한 경우는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나며, 實熱한 경우는 五臟六腑의 熱、火、燥、濕熱、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

型이 나타나며 實寒熱挾雜인 경우는 五臟의 水腫、氣滯、瘀血、食積、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과 臟腑相合證型이 나타난다. 또한 診斷治療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診斷治療과정의 상황은 主訴症에서 가설설정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八綱가설만 된 경우, 氣血陰陽의 부족이나 病邪의 가설만 된 경우, 病位의 가설만 된 경우, 病位와 八綱의 가설만 된 경우, 證型의 가설이 설정된 경우 등 다양하게 분류하여 일률적 단계진행에서 벗어나는 진단과정의 類型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臟腑證型의 18類型과 診斷治療과정모델의 6類型을 종합하여 보면 內傷疾患 108개의 診斷治療모델의 類型化를 찾을 수 있었다. 虛寒證인 五臟의 陽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 虛熱證인 五臟의 陰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 虛寒熱挾雜한 경우는 五臟의 氣、血不足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생관계의 五臟挾雜證型에 診斷治療과정의 상황을 主訴症에서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八綱가설만 된 경우, 氣血이나 病邪의 가설만 된 경우, 病位의 가설만 된 경우, 病位와 八綱의 가설만 된 경우, 證型의 가설이 설정으로 類型화된 경우와 實寒證인 五臟六腑의 寒、寒濕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

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和 臟腑相合證型, 實熱證인 五臟六腑의 熱, 火, 燥, 濕熱, 風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和 臟腑相合證型, 實寒熱挾雜證인 五臟의 水腫, 氣滯, 瘀血, 食積, 痰飲으로 형성된 基本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虛實挾雜證型, 앞서의 基本證型이 중심이 된 상극관계의 五臟挾雜證型和 臟腑相合證型에 診斷治療과정의 상황이 主訴症에서 가설설정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八綱가설만 된 경우, 氣血이나 病邪의 가설만 된 경우, 病位의 가설만 된 경우, 病位와 八綱의 가설만 된 경우, 證型의 가설만 된 경우의 설정으로 類型화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위의 108개의 診斷治療類型에 診斷治療지식의 운용방식에 따른 단계적 진행에 따라 診斷治療과정지식인 a. 診斷參考用資料, b. 現病歷資料, c. 主訴症에 따른 假說生成, d. 八綱辨證用資料, e. 八綱, 氣血, 病邪 및 臟腑의 確認用資料, f. 證型의 確認用資料, g. 八綱의 假說決定, h. 氣血 및 病邪의 假說決定, i. 臟腑의 假說決定, j. 證型의 假說決定, k. 基本證型의 治療原則 및 基本處方, l. 挾雜證型의 治療原則 및 處方, m. 基本證型和 挾雜證型의 主症에 따른 處方등을 운용하는 모델을 만들어 108개의 診斷治療모델 類型化 作業을 이루었다.

라. 研究結果에 대한 期待效果 및 活用方案

臟腑證型의 18類型과 診斷治療過程모델의 6類型을 綜合하여 內傷疾患의 108개의 診斷治療모델 찾아 이에 診斷治療知識의 活用方式에 따른 段階的 進行에 따라 이에 診斷治療知識을 運用하는 모델을 만들어 108개의 診斷治療모델 類型化作業을 이루었다.

따라서 臟腑證型類型에 診斷治療過程모델의 類型을 結付시켜 內傷疾患의 治療效果에 대해 客觀的인 再演性을 일반화하기 위한 診斷治療모델의 類型化作業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期待效果 및 活用方案을 찾을 수 있다.

a. 內傷疾患에 대한 診斷治療모델의 類型化로 인해 실질적인 內傷疾患病증의 客觀化作業이 進行될 수 있다.

b. 診斷治療모델의 類型化에 의해 診斷知識의 데이터 베이스가 構築되어 臨床經驗이 統計學的으로 處理될 수 있게 되며 情報化가 可能해진다.

c. 診斷治療모델의 類型化에 의해 辨證論治의 運用基準이 마련되어 學校教育研究의 分명한 方向을 提示할 수 있게 된다.

d. 診斷治療모델의 類型化에 의해 患者의 臨床케이스가 類型分析으로 客觀化됨으로서 이를 利用한 臨床實習의 教育效果를 얻을 수 있다.

e. 診斷治療모델의 類型化에 의해 學校의 理論的 知識과 임상가의 經驗的 知識간의 連繫가 가능해져 대학과 기업가간의 連繫研究가 가능해 질 수 있다.

f. 診斷治療모델의 類型化에 의해 한방診斷의 客觀的類型이 形成되어 컴퓨터를 응용한 診斷器機 開發의 실질적인 基盤을 造成할 수 있다.

앞으로 본 研究의 結果가 보다 구체적으로 더욱 더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한의 診斷治療상의 用語統一, 한방진료건의 統一化作業등이 進行되어야 그 의미가 더욱 있으리라 본다.

마. 參考文獻

1. 金完熙 외. 『한의학의 形成과 體系』. 대구: 中文出版社, p.97.117.120, 1991.
2. 金完熙 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pp.95-136, pp.139-166, 1985.
3. 文濬典 외.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pp.245-247, 1990.
4. 尹吉榮. 『東醫方劑學』. 서울: 미네르사, pp.17-26, 1967.
5.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pp.29-31, pp.317-325, 1983.
6. 李鳳敎. 『韓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pp.12-39, pp.58-62, 1985.
7. 李鍾馨 외. 『韓方臨床入門』. 서울: 成輔社, pp.18-23, pp.172-220, 1985.
8.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p.306-309, 1984.
9. 金廣中. 『韓醫專門家시스템 研究最終報告書』. 대전: 韓國電子通信研究所, 1986.
10. 金廣中. 『韓醫專門家시스템의 知識베이스 構築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7.
11. 金廣中. 『韓醫內科疾患 診斷專門家시스템의 臨床의 活用に 관한 연구』. 『동서의학』 88년 6월호, pp.15-56, 1988.
12. 金廣中. 『韓醫內科疾患 診斷專門家시스템의 臨床의 活用品高揚研究』. 『동서의학』 91년 12월호, pp.5-32, 1991.
13. 尹吉榮. 『東醫學理의 現代的 究明』. 『동양의학』 76년 4월호, pp.9-22, 1976.
14. 尹吉榮. 『한의학의 客觀化와 韓洋方病名統一을 위한 方法』. 『제한』 창간호 76년 3월호, pp.27-29, 1976.
15. 李鍾馨. 『韓方病證名制定의 必要成』. 『황제의학』 76년 9월호, pp.51-54, 1976.
16. 신동하. 『漢醫專門家시스템具現化段階報告書』. 대전: 韓國電子通信研究所, 1986.
17. 廣東中醫學院編. 『中醫診斷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21-133, 1982.
18. 戴新民. 『中醫診治新深』. 臺北: 啓業書局印行, pp.1-3, 1972.
19. 方藥中. 『辨證論治研究七講』. 上海: 延邊衛生出版社, pp.102-176, 1983.
20.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內科學』. 上海, 商務印書館, pp.1-205, 1975.
21. 盛增秀 외. 『藏象概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97-181, 1980.
22. 추學燕. 『中醫五臟病學』. 成都: 成都中醫學院, pp.26-43, 1982.
23. 邵念方. 『臟腑證治與用藥』. 上海: 山東科學技術出版社, pp.7-27, pp.38-48, 1983.
24. 安徽中醫學院編. 『中醫臨床手冊』. 서울: 成輔社, pp.3-26, pp.34-38, 1984.
25. 王冰註. 『黃帝內經』. 서울: 高文社, p.80.159.169, 1975.
26. 姜春華. 『試論中醫臟腑辨證論治地沿革』. 『上海中醫雜誌』, pp.6-7, 1982.

27. 孟床云. 「從中醫疾病模型看中醫臨床辨證思維的特點」. 『遼寧中醫雜誌』, 1984.